



## 세세생생 끄달림 없는 자유인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는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저 절에 나가서 기도나 하고, 그저 다녀 가면 되려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는 자유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스님들이 여러분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스님들 마음이 여러분 마음하고 결부가 안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나는 여기 왔다만 가도 되고 또 왔다만 가도 스님들은 다 아실 거다. 또 일체제불께서 다 통신이 되시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통신처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왔다 갔다는 걸 아는 까닭에 일체가 다 아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스님들 고강당어리만 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몸도 자기의 몸이 아닌 까닭에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께서 앞으로 물러가 타지는 데도 그렇고 또 공부하는 데 길을 어떻게 가이만 옳으나 하는 것도 우리가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오늘 같은 날은 질문으로 우리 서로 토론을 합시다. 어떻습니까?

**질문자(남):** 제가 얼마 전에 육만 원짜리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고 그래서 돌려놓으려고 그래도 안되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 건이 있는 후에 또 그보다 더 크게 십만 원짜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안 돌려놓이고 그래서 또 화를 내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삼십만 원짜리 건이 또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억울하고 그래서 싸우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사십만원 원짜리가 터지면서 화제가 나는 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변연히 알면서 이렇게 안 돌려놓이고 화를 내고 그랬을까? 하면서 다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 정리하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까지도 '야, 나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돼서 참 고맙다.' 하고 다 돌려놓으니까 돈은 내게 되었는데도 마음은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질문 내용은 인편의 경계에 대해서 매일매일을 무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응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냥 그냥 산다면 그거보다 더 큰 향상의 도리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상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면세계에서 당신을 이끌어 가는 데는 바로 그런 점에서 그것이 체적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돈이 걸렸더라도 그냥 무심으로 돌려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으니까 '이것도 주인공 네가, 내가 한 거지.' 하면서 상대방을 곱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인해서 덕의 심부름을 하게 됐으니까 오히려 고맙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고마운 겁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삼십만 원이고 사십만 원이고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대립이 되니까 알라고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한번에 끝날 거를 두 번 세 번까지 가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무너질 이치가 내 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진짜로 믿고 주장자가 있는 사람은 그냥 허허 웃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왜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아니, 믿지 않는 것은 아는데 믿지 않는 걸로 돼 있는 분

들이 많죠. 주인공을 부르면서도 입으로만 불렀지, 진짜 자기 뿌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도 주인공을 찾았는데 왜 그렇게 나는 안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것은 벌써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자기 양심을 보고 그 일이 안되는 걸 생각한다면 틀림없는 걸요, 뭐.

그러니까 오래 다니고 오래 안 다니고 간에 처음 왔어도 한번 일러준 거를 명심하고 오직 그렇게 쥐고 가는 사람, 즉 급박한 사람, 이런 분들은 좀 쉬운 거 같아요. 우리가 병만 낫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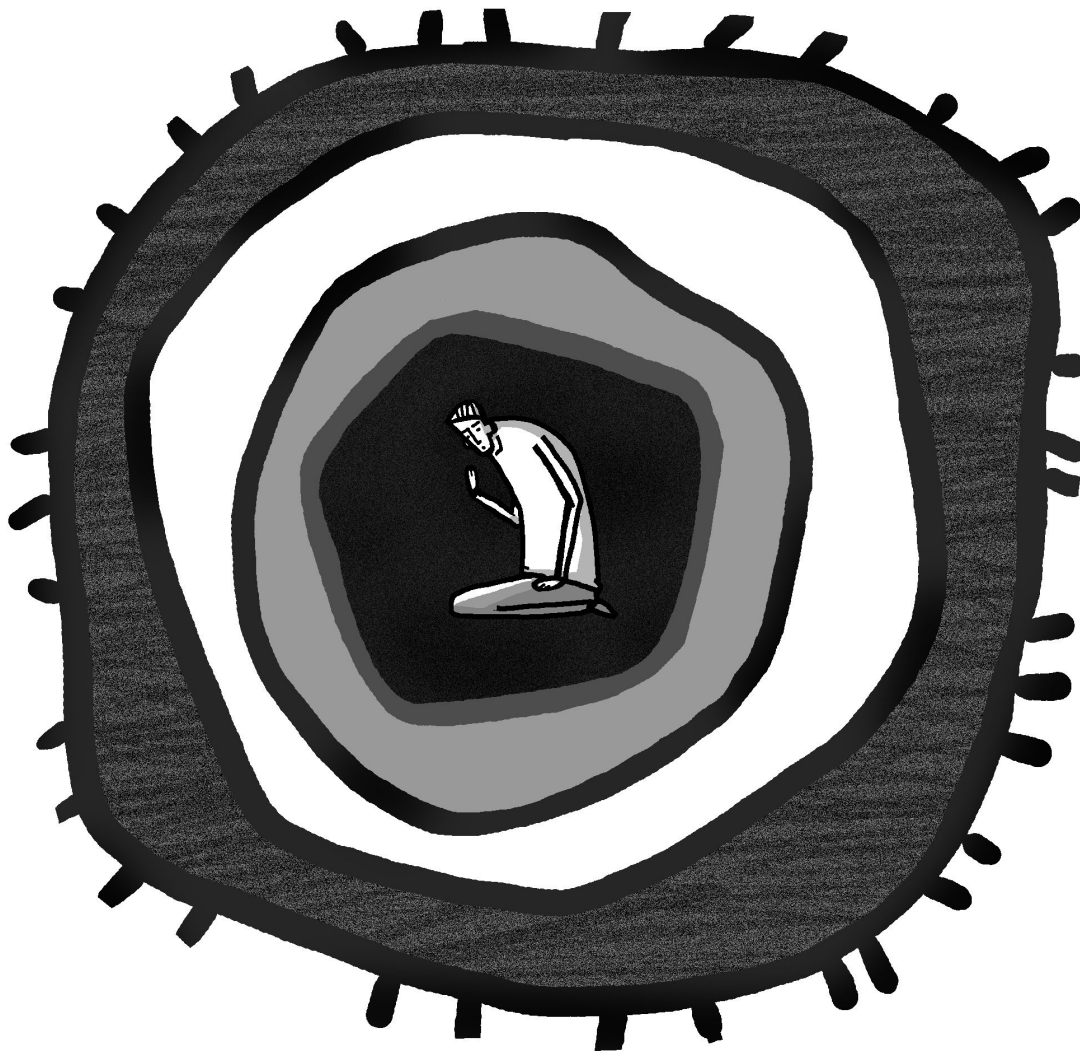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되자고만 또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왔다 하면 종자가 뿌리가 되고 뿌리가 바로 자기 싹을 현실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싹은 보호받는 데가 어디냐 하면 뿌리로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형상, 이름을 믿지 마라. 그것은 도깨비장난과 같으니라. 그러니 너의 내면의, 너의 선장을 진짜로 믿어라. 너를 이끌어가는 선장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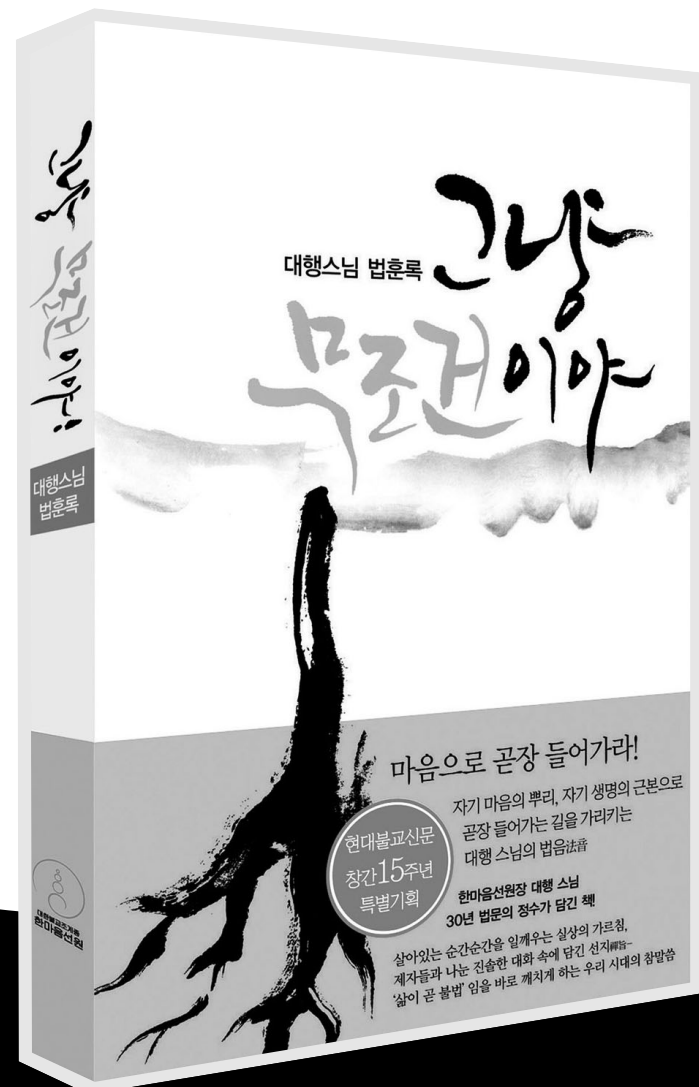
우리가 이 내면공부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 한 뜻도 가만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편을 보면 그게 다 나와요. 보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듣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걸어도 뒷 발자국이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그냥 모두 일거수일투족이 다 바람같이 사라지고, 내가 그냥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갈 뿐이고 디딜 뿐이고 움켜쥐릴 뿐이지 앞뒤가 없어요. 떼어놓는 대로 바람같이 사라지니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가운데 어떤 놈이 견고 있느냐는 애깁니다. 그 가운데, 바람같이 사라지는 공한 그 가운데 어떤 놈이 지금 현실에 견고 있느냐는 애깁니다. 움켜쥐려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어떤 놈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애깁니다. 그러니까 그놈 속에, 또 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놈 속에 선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몸이 움켜쥐려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상대를 알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것을 잘 알아서 좀 실천으로 나가게끔 하십시오.

또 말할 거 있습니까?

**질문자(남):**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원에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뭐, 몸이 아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좀 오래 다니신 분들도 물어보니까 법회에 안 나오면 좀 어딘가 서운하고 그래서 나오는 분도 있고, 또 나오면 좋으니까 또 이익이 되니깐 나온다는 분도 계시고 또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느 만큼 공부가 돼서, 또 뭐 귀신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이렇게 다니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법회에 나오는 것은 자기를 더 되돌아보고 큰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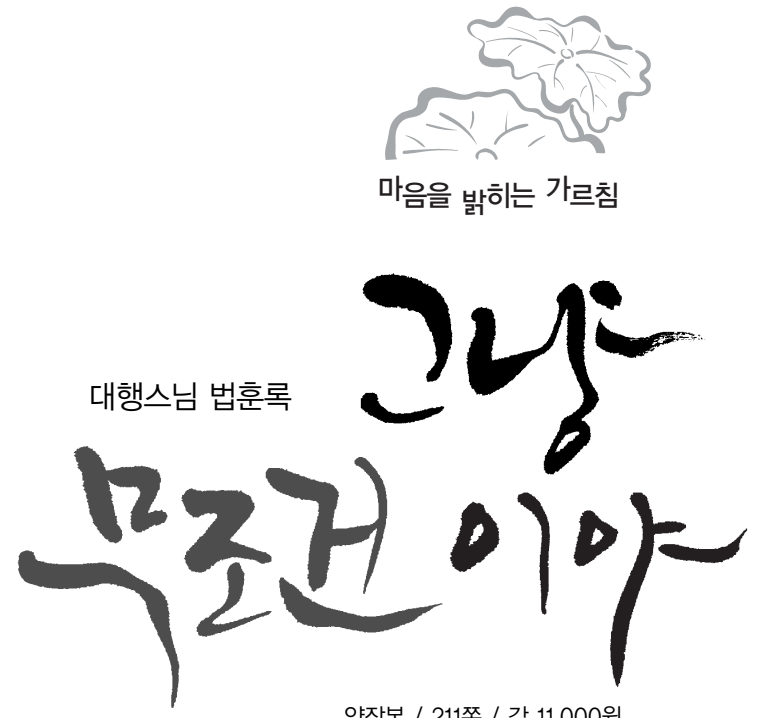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